

나주 시민복지 거점 ‘빛가람 꿈자람센터’ 개관

시, 돌봄·교육·체험·먹거리 아우른 생활밀착 서비스

혁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아동 친화 복합시설 운영

나주시가 아동과 가족을 위한 돌봄, 교육, 체험 기능을 한곳에 담은 생활밀착형 복합시설 ‘빛가람 꿈자람센터’를 개관하고 시민 삶 가까이에서 체험할 수 있는 복지 인프라 확충에 나섰다.

10일 나주시에 따르면 최근 빛가람동에 조성한 ‘빛가람 꿈자람센터’ 개관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개관식에는 윤병대 나주시장과 신경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재남 나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도의원과 시의원, 지역 사회단체 관계자, 시민과 지역 어린이 등 200여명이 참석해 센터 개관을 함께 축하했다.

행사는 나주시립국악단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기념사와 축사, 테이프 커팅식,

시설 관람 순으로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아동과 가족을 위한 새로운 복합공간의 출범을 환영하고 향후 활용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빛가람동에 거주하며 두 자녀를 키우는 한 시민은 “집 가까이에서 아이들을 위한 도서관과 돌봄 공간이 생겨 매우 반갑다”며 “다른 학부모들에게도 꼭 추천하고 싶다”고 말했다.

빛가람 꿈자람센터는 어린이도서관, 육아지원센터(장난감도서관, 놀이체험실), 다함께돌봄센터, 로컬푸드직매장을 갖춘 복합시설로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에 건 축면적 2880㎡, 연면적 4639㎡로 건립됐다.

센터는 영유아와 어린이, 보호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아동 친화적 독서 및 체험 공간과 육아 지원 기능, 지역 먹거리 공간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돌봄과 교육, 여가, 식생활이 한 곳에서 이뤄지는 생활밀착형 복합공간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어린이도서관과 다함께돌봄센터는 개관일에 맞춰 운영을 시작했으며, 육아지원센터(장난감도서관, 놀이체험실)는 오는 27일 정식 개소할 예정이다. 로컬푸드직매장 또한 같은 날 가오픈을 통해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빛가람 꿈자람센터는 혁신도시의 교육 문화와 돌봄, 먹거리 환경을 종합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조성한 시설이다”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이자 정주 여건이 우수한 명품 교육 도시 나주를 만들기 위해 생활권 중심의 공공 서비스와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주=조현천 기자 pose007@gwangnam.co.kr



나주시는 최근 빛가람동에 조성한 ‘빛가람 꿈자람센터’ 개관식을 열고 운영에 들어갔다.

“강진서 ‘음악듣고 자란쌀’로 명절선물 하세요”

미국 농무성 인증...영동농장 80ha 재배·10t 수출

설 명절을 앞두고 가족 건강을 고려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강진군에서 생산되는 ‘음악 듣고 자란 쌀’이 건강한 명절 상차림을 위한 프리미엄 쌀로 주목받고 있다.

‘음악 듣고 자란 쌀’은 벼의 생육 주기에 맞춰 모차르트와 베토벤 등 서양 클래식 음악과 사물놀이·농악 등 전통 풍물 음악을 들려주는 ‘그린음악농법’을 적용해 재배한 유기농 쌀이다.

이 농법은 작물의 생육 환경을 안정적으로 조성하는 친환경 재배 방식으로, 미질과 밥맛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해당 쌀은 일조량이 풍부하고 공기와 물이 깨끗한 강진군의 청정 자연환경에서 자란다. 생산법인인 영동농장은 1998년부터 26년간 친환경농업을 실천해 온 선도 농가로, 전남도 유기농 명인이었던 전임 대표의 철학을 이어 유기농

쌀 생산에 전념하고 있다.

영동농장은 포트육묘 방식으로 튼튼한 모를 길러 밀식하지 않고 심는 재배 방식을 고수하며, 생육 전 과정에 음악을 들려주는 농법을 실천하고 있다. 약 80ha 규모의 논에서는 오전에 클래식 음악을, 오후에 전통 음악을 들려 주며 벼를 재배한다.

‘음악 듣고 자란 쌀’은 국내 유기농 인증은 물론, 미국 농무성(USDA) 유기농산물 인증도 획득했다. 이러한 인증으로 최근 미국 프리미엄 유기농 마켓인 에러한 마켓에 백미 7t, 현미 3t 등 총 10t의 쌀을 수출하며 품질과 안전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미국 시장에서 의 성과는 국내 소비자들에게도 신뢰할 수 있는 유기농 쌀임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



고 재배된 유기농 쌀은 잔류 농약에 대한 우려가 적어, 식품 안전을 중시하는 소비자들에게 인성하고 선택할 수 있는 식재료로 꼽힌다. 설 명절을 맞아 가족의 건강을 생각한 먹거리를 찾는 이들에게 ‘음악 듣고 자란 쌀’은 의미 있는 선택지로 제시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정성껏 키운 유기농 쌀이 설 명절 가족 건강을 챙기는 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미국 수출을 통해 품질 경쟁력을 인정받은 만큼, 앞으로도 국내 소비자들에게 신뢰받는 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음악 듣고 자란 쌀의 주문·구입 문의는 강진쌀 홈페이지(gangjinssal.co.kr)와 초록민음직거래센터(061-433-8844)를 통해 가능하다.

강진=이진묵 기자 sa432252@

여수세계섬박람회, 국가·국제기구 유치 ‘순항’

프랑스·그리스·일본 등 참여...해외 관광객 유치 박차

2026여수세계섬박람회가 해외 국가·국제기구 유치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며 성공 개최를 향한 발걸음을 빠르게 내딛고 있다.

10일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조직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총 30개 참여 목표 국가·국제기구 가운데 프랑스, 그리스, 일본, 필리핀, 에콰도르, 케냐, 마다가스카르 등 25개 국가와 WHO, 유니세프 등 3개 국제기구를 포함한 총 28개 국가·국제기구의 참가를 확정했다.

조직위는 그동안 섬과 해양을 주제로 한 국제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각국 정부, 국제기구, 주한 외교공관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전개해 왔다.

특히 여수시가 국내에서 유일하게 회원으로 가입돼 있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한 회의’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한 섬 발전, 해양 생태 보전 등 전지구적 과제를 중심으로 섬박람회의 비전과 차별성을 강조하며 참여 공감대를 넓혀왔다.

이번에 확정된 국가·국제기구들은 박람회 기간 동안 각국의 섬 정책과 문화, 기술, 지속가능 발전사례 등을 전시·공유하며 국제 협력의 장을 만들어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섬박람회는 단순한 전시행사를 넘어, 섬과 해양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협력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해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단계별·체계적인 준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조직위는 지난해 11월 영국 런던에서 개최한 ‘영국 국제관광 박람회’에 참여하여 ‘아시아태평양관광협회(PATA: Pacific Asia Travel Association)’와 유치 협력을 논의했으며, 같은해 12월 일본 오사카 현지여행사 대상 홍보에 이어 오는 2월 말에는 미국 L.A 지역 여행사와 언론인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해 해외 관광객 유치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조직위는 3월 말까지 최종 참여 국가·국제기구를 확정하는 한편, 해당 국가들을 대상으로 전시 콘텐츠 구체화, 세계섬 도시대회 및 국제섬포럼 연계 등 협의를 진행해 섬박람회 운영 프로그램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종기 조직위 사무총장은 “목표한 국가·국제기구 유치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면서 섬박람회 성공 개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남은 준비 기간 동안 콘텐츠 완성도를 더욱 높여 전 세계가 주목하는 국제행사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는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라는 주제로 2026년 9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여수 돌산 진도 지구, 금오도, 개도,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gwangnam.co.kr

영광 과학영농시설, 연간 최대 20억 경제효과

종합검정실·미생물배양실 운영...탄소중립 기여도

영광군의 과학영농시설이 농업인의 생산비 절감과 안정적인 영농 경영을 지원하며, 연간 최대 20억원 규모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군에 따르면 영광에 구축된 종합검정실은 토양검정과 퇴·액비 분석을 무료로 제공해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경우 발생하는 검사 비용 대비 연간 약 3억 4000만원의 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다.

또 토양검정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적정 시비 지도는 화학비료 사용량 감소로 이어져, 2024년 기준 5383ha 농경지에서 요소비료 약 936t을 절감했다. 이에 따른 농가 경영비 절감 효과는 약 7억4800만원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화학비료 사용 저감은 토양 내 양분 과잉과 질소 성분 유실을 줄여 수질·토양 오염을 예방하는 동시에, 비료 생

산·유통·소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켜 탄소중립 실현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낸 것으로 평가된다.

미생물배양실 운영에 따른 효과도 두드러진다. 시중 미생물제제(ℓ당 약 1만원) 대비 ℓ 100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미생물을 공급해 농가 부담을 대폭 경감하고 있다.

2025년 기준 공급량 89.7t을 적용하면 약 8억9000만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했으며, 연간 최대 생산능력인 150t을 전량 공급할 경우 절감 규모는 최대 14억 8000만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미생물 활용 확대는 화학농자재 사용을 대체·보완해 토양 생태계 개선은 물론, 농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과 저탄소·친환경 농업 기반 조성에도 기여하고 있다.

영광=정규필 기자 ykjpg98@



곡성군은 지역에서 재배한 친환경 유기농쌀을 활용해 육과농협이 만든 유기농 즉석밥인 ‘아기자기 좋은쌀밥’을 출시했다.

곡성, 친환경 유기농쌀 ‘아기자기 좋은쌀밥’ 출시

친환경 유기농 즉석밥

곡성군은 지역에서 재배한 친환경 유기농쌀을 활용해 육과농협이 만든 유기농 즉석밥인 ‘아기자기 좋은쌀밥’을 출시했다.

‘아기자기 좋은쌀밥’은 바쁜 일상에서

도 누구나 안심하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곡성군 친환경 유기농쌀로 정성껏 만든 즉석밥 제품으로, 친환경결의 소비 확대와 부가가치 창출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육과농협은 지난해 일반쌀로 출시한 ‘아기자기 좋은쌀밥’이 소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데 힘입어, 올해는 유기농

쌀을 사용한 ‘아기자기 좋은쌀밥’ 버전 2를 선보이게 됐다.

군과 육과농협은 최근 육과농협에서 ‘아기자기 좋은쌀밥’ 출시 및 시식 평가회를 열고 제품의 품질과 경쟁력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군 관계자는 “농업 환경이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가공·유통·소비를 잇는 새로



운 시도가 이어질 때 농업은 다시 경쟁력을 갖게 되고 농업인의 소득도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농산물의 가치를 높이고, 농업인의 농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곡성=김유변 기자